

# LNG 개별요금제 도입 배경과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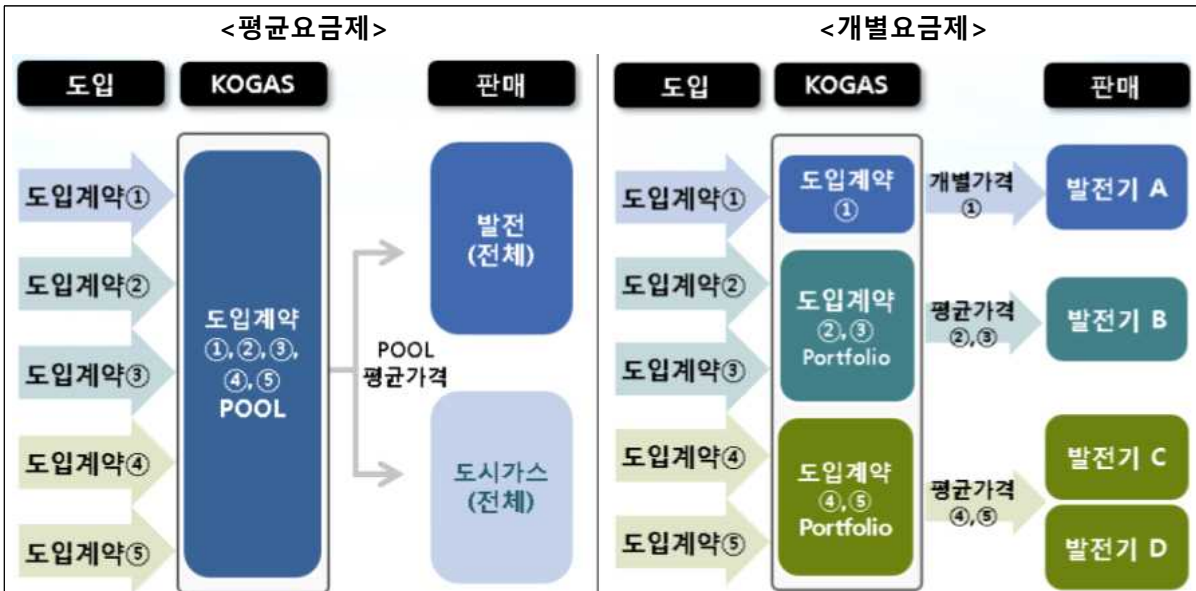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
이 선 화 (sunhwa@kdb.co.kr)

- ◆ 정부는 발전용 천연가스(LNG) 직수입 비중 증가에 따라 LNG의 안정적 국가 수급 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'22년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 결정
- ◆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가 도입 취지인 가스 도입 효율성 제고와 전력 시장 내 공정경쟁 강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제도보완과 각계 의견수렴 중

## □ 한국가스공사(KOGAS), '22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(LNG) 개별요금제 도입

- 산업통상자원부는 '20.1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을 승인
  - 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(이하 가스공사)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 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천연가스(이하 LNG)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
    - \*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하여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'평균요금제' 적용
  - '22.1.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, 대상 발전소는 '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 가능

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비교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20.1)

- '17년부터 발전용 LNG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평균요금제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,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'19.6월 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」에 반영한 이후, '19.12월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 통과
  -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(저장 등 추가 비용 소요)가 없고, 세계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\*할 수 있어,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    - \* 시장가격이 평균요금보다 높을 경우 '평균요금제', 낮을 경우 '직수입' 선택
  - 국내 LNG 직수입은 '98년 석유법 개정'에 따라 자가소비용에 한정하여 허용되어, '05년 (주)포스코와 SK E&S(주)(당시 K-Power)가 최초로 LNG 직수입
    - \* '98년 법 개정 이후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'05년 '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 운영방침'이 마련되면서 LNG 직수입 개시
  - '19년 국내 LNG의 직수입 비중은 17.2% 수준으로, '17년부터 급격히 증가
    - \* 직수입 비중(%) : ('15) 5.7 → ('16) 6.3 → ('17) 12.3 → ('18) 13.9 → ('19) 17.2
    - \*\* '20년 기준 국내 LNG 직수입 사업자는 (주)포스코, GS칼텍스(주), S-OIL(주) 등 3개 산업용 소비자과 SK E&S(주), 한국중부발전(주), 파주에너지서비스(주), 나래에너지서비스(주), GS파워(주), 신평택발전(주), GS EPS(주), 포스코에너지(주)의 8개 발전사업자 등 총 11개사

## □ 가스공사는 LNG 개별요금제 도입 효과 시현을 위해 기존 장기계약(평균요금제) 발전 사업자의 형평성 이슈 해결 등 제도보완 및 각계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중

- 정부는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가스 도입의 효율성 제고와 전력시장 내 가격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
  -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및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 강화로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  - 또한, 직수입 물량은 정부의 수급 관리가 어려운 반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의 통합 수급 관리가 가능하여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
- 한편, 가스공사는 LNG 개별요금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형평성 이슈 해결 등 시행 전에 제도보완과 각계 의견수렴 중
  - 이미 가스공사와 20년 장기계약(평균요금제)을 체결한 발전사들이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이슈 제기
  - 가스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,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